

	한국사	<b>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b> 32차시 : 1930's~1945 일본의 식민통치	학번	
	임종일 T		이름	

## ★병참기지화 정책

1930's 일본의 통치방식 : 민족말살통치

경제정책 : 병참기지화 정책

\*1차 대전 이후 (①) 을 겪으면서 일본은  
농업 뿐만 아니라 공업, 광업 분야로 수탈대상 확대

\*1930년대 초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방직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중단, (②) 을 실시

&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③) )로 만들려는 정책

1930년대 (④) )공업과 (⑤) )부분에 집중적으로 침투  
→ 식민지공업화가 빠르게 진전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이 설립.

## ★전시 동원체제 구축

-1938, (⑥) )을 제정

-한국인을 통제, 침략전쟁에 동원하고자 국민정신 총동원운동 펼침

-국민 징용령 제정

(⑥) ) (1938)

1.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정도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4.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7.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8.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관보" 3391호(1938) -

cf.

1910's 통치방식 : 무단통치

경제정책 : 토지조사사업

1920's 통치방식 : 문화통치

민족분열통치

경제정책 : 산미증식계획

##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1931 : 만주사변

-1933 : 국제연맹 탈퇴

-1937 : 중일전쟁

-1941 : 태평양전쟁

## \*대공황 Great Depression (1929)

## \*전시동원체제 - 법

1938 국가총동원법

1938 지원병제

1939 국민징용령

1943 학도지원병제

1944 징병제, 여자정신근로령

	한국사	<b>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b> 32차시 : 1930's~1945 일본의 식민통치	학번	
	임종일 T		이름	

## ★민족말살정책

-침략전쟁 확대로 인해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함.

‘일본과 조선이 하나’ (⑦) )라고 하거나,  
 ‘일본인과 한국인의 조상은 같다’ (⑧) )라고 주장하며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화시키려는 민족말살정책 시행

- ▶어린학생을 세뇌하러 (⑨) )라는  
 충성 맹세문을 억지로 외우게 함
- ▶일본 궁성을 향해 허리숙여 절하도록 함 (⑩) )
- ▶신사참배 강요
- ▶소학교의 명칭을 (⑪) )로 바꿈
-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  
 (창씨개명 거부시 식량, 물자배급 제외, 자녀 학교입학 금지)
- ▶우리말 금지
  - 조선어 과목 폐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글신문 폐간
  - 1942,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선어학회 회원을 해산시킴

(⑨) )

- 1 .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 천황 ’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 글쓰기활동

일제는 내선일체의 방법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써보세요

1910년대 중반 이후 일제는 조선과 일본은 유사하므로 동화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저항에 봉착하자, 민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저항을 무마시킬 방책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조선인이 마음으로 부터 식민지배에 순종하도록 하는 방책, 즉, 조선인을 동화시키기 위한 전제가 융화이고, 1920년대 내선결혼은 내선융화의 상징으로 대두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내선결혼’ 법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내선결혼을 양 민족이 서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융화의 결과로 표상하고, 사랑을 연쇄시킬 융화책으로서 통혼을 장려한다는 선전을 본격화했다. 이때 내선결혼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조선인이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접하게 함으로써 조선인의 사상·문화를 일본인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출산을 통해 혈육적으로도 일본인화 할 수 있는 동화의 궁극적인 수단으로도 이상화되었다.

조선총독부도 1920년대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내선결혼 부부 수를 조사하여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통혼은 매년 증가하고 그 가정은 모두 원만하다고 강조하면서 내선융화의 전도도 밝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이상으로 하는 결혼관이 유행하는 가운데, 내선결혼이 당사자 간의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정략적 혹은 경제적 동기로 인한 내선결혼도 많았다.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상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내선결혼에서도 부모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혼을 결정하기도 했다.

(일본인의 생각 / 조선인의 생각 / 결혼하는 일본인의 생각 / 결혼하는 조선인의 생각)